

최상의 교육은 자발적인 흥미가 우리날 때
 교육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려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지식을 전달 받는 것보다는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깨닫는 지식이 지능을 발달시키죠.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언어와 수학, 사회, 과학 등 각각의 학습 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학습이 힘들뿐더러 실제 생활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어렸을 적 사회 수업 시간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나라 최대의 철 생산지가 어딘지, 관동과 관서 지방의 기후가 어땠는지, 관심조차 없는 도시의 기능과 특성을 외우느라 밤을 지냈던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외운 지식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두가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잊혀진 탓이죠. 이젠 이런 낱알의 지식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모두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은 자신과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아직 발달이 미숙하고 모든 사고가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어떤 교육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아이의 발달 특성상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신체 발달 등으로 각각 발달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성장 발달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사고 능력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발달되기보다는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 작용인 경험을 통해 계발됩니다.

교육학자 존 듀이가 ‘의미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최상으로 펼쳐서 학습한다.’라고 말했다듯, 아이가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것,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보다 일부러 학습시키는 기회가 많을 경우 아이는 분명 수동적인 아이가 되고 맙니다.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통합교육의 첫걸음입니다.

엄마야말로 최고의 선생님

“아이의 사회성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야말로 최고의 선생님”

교육 방식의 대전환을 꿈꾼다

부모넷 www.bornet.or.kr

시작됩니다”

요즘 아이들 치고 교육 기관 한 곳쯤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소변 가리기가 무섭게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것은 기본이고,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싶은 곳의 교육 기관은 엄마와 아이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아이들은 교육 기관의 이곳 저곳을 다니느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교육 기관에 아이를 맡긴 엄마는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시키고 있다고 스스로 호뭇해합니다. 더욱이 비싼 돈을 들인 교육 기관일수록 엄마의 만족도와 그에 따른 기대치는 더욱 높아지죠.

교육 기관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 기관에 보내면 아이가 보다 똑똑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래 친구들과 지내면서 사회성도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막연한 기대처럼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어떤 보고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4세 이하의 아이들에겐 부모와의 정서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와의 정서적인 접촉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로부터 너무 빨리 떨어졌을 때 아이가 느끼는

상실감과 불만은 세상의 어떤 귀한 것으로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시기의 아이들에겐 생활 자체가 교재이고 교구입니다.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 다양한 물건과 사람들을 봄으로써 생활의 경험을 다양화시켰을 때 비로서 교육으로 살아남습니다. 사회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또래 아이들과 접촉한다고 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봤을 때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시기는 만 4세 정도이니까요. 그 이전에는 비록 또래와 함께 있어도 어울려 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무작정 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를 참고 상대방에 맞추는 경험만 쌓게 하는 셈입니다.

아이의 사회성은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이들은 한 살이 지나 걸음마를 땔 무렵부터 이미 집 안일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싹틔우고 있습니다. 바지를 입히려 하고 하면 발을 살짝 들어주고, 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손을 뻗어 짐을 들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3세가 되면 자신의 능력이 닿는 대로 엄마의 심부름을 돕죠.

이런 엄마를 도우려는 마음은 곧바로 사회성의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부모의 잣대로 아이의 잠재력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엄마 자신의 능력을 간과하고 교육 기관이나 교재를 맹신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아이에게 있어 엄마만큼 훌륭한 선생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PEEK**

